

지구를 위한 그린액션 시리즈

노 패스트패션 편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
Daejeon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목 차



- 01** 시작하는 글 5
- 02** 기후위기의 주범, 패스트패션 - 최효민 작가 7
- 03** 나는 오늘 옷을 샀다, 기후 위기를 샀다 - 배재영 작가 13
- 04** 물속의 미세 플라스틱 35% 옷에서부터 - 남수향 작가 19
- 05** 내일을 위한 패션 - 양승진 작가 25
- 06** 정보 나눔 31

SAVE
THE
EARTH



01

시작하는 글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주제를 놓고 생활에서 밀접한 키워드를 찾아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의식주, 그중에서도 옷이 아닐까 싶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패스트패션을 그냥 무심하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 그곳에서 이 가이드북의 기획이 시작되었다. '패스트패션' 기후위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을 끌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대중의 시선을 잡는다'라는 말을 되뇌이다 청년작가들과 콜라보를 생각하게 되었다. 작가들이라면 대중의 시선을 잡으며 대중들에게 문제의식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것이라 기대했다.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대전지역 청년예술가들이 예술적 시선에서 풀어보는 패스트패션 문제 "노 패스트패션"을 이야기한다. 작가들의 기획 의도를 담고, 작품의 제작 방향을 담았다.

작가들의 작품이 이해(관람)하는데 어려울수도 있겠다. 그럴때에는 이 가이드북을 보시길 권한다.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패스트패션의 현재 모습을 알 수 있고, 그 문제에서 파생된 질문에 답하는 작가들의 생각이 가이드북에 담겨있다. 적극적인 청년작가들의 도전에 응원을 보내고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이 패스트패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행보에 함께하길 바란다.



02

기후위기의 주범 “패스트패션”

패스트패션 FastFashion

패스트패션(fastfashion)이란 주문을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패스트푸드(fastfood)에서 유추해 만들어진 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맞춰 디자인을 빨리 바꿔 내놓은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수시로 바꾸는 유행에 따라 빨리 만들어 빨리 입는 옷으로, 소재보다는 디자인을 우선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패스트패션[FastFashion][매일경제, 매경닷컴]



패스트패션은?

'패스트패션'이란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 유행에 맞는 의류를 빠르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품종 대량생산'의 대명사인 패스트패션은 패션섬유 산업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게 만든 일등공신이다. 다양한 저품질·저가 의류 제품을 빠르게 많이 생산하면서 의류의 주기는 짧게 만들고, 폐기물은 늘어나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스트패션을 지향하는 SPA 브랜드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SPAO, 탑텐, 에잇세컨즈, 유니클로, H&M, ZARA 등이 있다.

문명과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아래,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편리함이 대중화되는 한편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렸다. 그로 인해 환경 재해나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패션들이 자연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나 버려지는 의류 쓰레기들이 얼마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여, 패스트패션에 관한 윤리적인 관점을 키워나가기 위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패스트패션의 현재 모습

2015년에 발표된 'The True Cost'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전 세계는 매년 약 800억 벌의 새로운 의류를 소비하며, 이는 20년 전 소비량보다 400% 증가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최신 트렌드에 맞춰 디자인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유행에 뒤떨어진 옷들은 버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패스트패션은 타 브랜드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다 보니 품질이 떨어져 그만큼 옷을 빨리 버리고 다시 구매하는 반복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패스트패션이 환경에게 미치는 결과는 다음 등이 있다.

- 옷을 위해 배출되는 탄소는 연간 120억 톤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
-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 재료는 매년 3억 4200만 배럴의 기름을 필요로 한다.
- 염료 사용 등의 의류 생산 과정은 1년에 4300만 톤의 화학물질을 필요로 한다.
- 매년 수조 리터(L)의 물이 직물에 사용되며 전 세계 폐수의 약 20%가 패션 산업에서 발생한다.
- 환경부 환경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매일 900톤 가까운 폐섬유가 태워지고 매립되고 있다. 태워지는 옷들은 이산화탄소와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 물질을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최근 패션 업계에서는 심각성을 파악하고 친환경적인 옷을 생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자이너들은 끊임없이 친환경을 트렌드로 제시하며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콘셉트의 디자인을 기획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필(必)환경'이다. 이는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이제는 친환경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의류 브랜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파타고니아를 떠올릴 것이다. 2011년 블랙 프라이데이에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Don't buy this jacket(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광고는 소비 일색이었던 의류 업계에 물보라를 일으켰다. 파타고니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실제 제품 생산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2011년 광고 이후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40% 이상 급성장했다. 이후 2020년 11월 공개된 광고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지구의 자원이 무제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재활용과 유기농, 공정무역을 요구하라는 카피는 누구보다 환경에 민감한 MZ 세대를 움직이는 메시지가 되었다.

또한 의류 브랜드 '리바이스'는 21년 4월, 공개된 광고에서 필 환경이라는 트렌드에 맞게 '좋은 선택, BUY BETTER'의 선순환을 이야기하며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리바이스 진의 본질적인 장점을 드러냈다. 업사이클링과 기후 변화 대응, 아동 복지를 포함한 6가지 공약을 내걸며 MZ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패션은 즉각적인 언어이다."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프라다의 수석 디자이너인 미우치아 프라다가 남긴 명언이다. 패션은 사람의 첫인상이자 가치관, 라이프스타일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MZ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밀레니얼과 Z세대를 아우르는 MZ 세대는 자신의 신념에 들어맞는 제품을 소비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브랜드를 불매하는 등 패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소유하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을, 유행하는 것보다 취향에 맞는 의류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여 '경험 가치'를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대량생산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넘어 커스터마이징이 대세가 된 요즘, 패션 산업은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하며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패션이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똑똑한 소비습관을 가지게끔 하여 착한 소비, 즉 지속 가능한 소비의 기준을 세우고 행동을 옮길 수 있게 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기워진 오염(2023)



작품명(제작년도) : 기워진 오염(2023)

소재 : fabric

작업방식 : patchwork

규격 : 700×700mm

작가 : 최효민

작품 소개

패스트 패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입에 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 속으로 물음표를 띄울 것이다. 시대의 유행에 따라 패션 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빠르게 소비되고 사라지는 패션이라는 그 뿌리에 관심을 가지는 이는 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기후 위기 시대 아래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겪는 문제임과 동시에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임을 잊지 않기 위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작품에 기록하고자 한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과 버려지기 직전에 놓인 옷들을 표현 도구로써 선택해, 조각조각 잘라낸 후 캔버스 위로 쌓이듯이 얹어 다시 박음질하여 쓰레기가 잔뜩 쌓인 것만 같은 언덕을 표현하고 그 위에 식물 자수를 놓았다.

직업 에피소드

하늘을 보면 구름과 또 다른 구름 조각들로, 그를 제외한 빈 공간은 푸른 공기의 에너지로 상호 연결되어 있었고 지평선 너머의 나무, 건물들과도 아지랑이 치며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곳에 속해 있는 '나'도 연결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단하고 위대한 어떤 힘에 의해 생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이면서 전체이기에 서로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한 생명력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랜 시간동안 그 연결감을 잃고 살아왔다. 이는 심각한 기후 위기 시대 안에서 필히 되살려야하는 감각이기도 하다. 기후 문제를 공부하고, 원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지구 생명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연결되어 그들의 움직임과 공명한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내일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선택한 방식은 천과 천을 연결하는 패치워크였다. 작업은 더 이상 입지 않아 버려질 예정이었던 옷들을 주변에서 받아와 조각조각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원단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들이 가진 성질 또한 제각각이라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연결하는 것에 꽤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원단은 장력에 의해 밀려 늘어나고, 어떤 원단은 두꺼워 바늘이 여러 차례 부러지기 일쑤였다. 나는 의도와는 다르게 발생하는 것들로 인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형태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마냥 아름답고 정돈된 것이 아닌 어지럽고 복잡한 경관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망가져가는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했다. 엉키고 찢어진 원단들을 위에 배치하고 시들어가는 식물들을 자수로 새겨 넣었다.

작가 소개

최효민 (96.08.23)

itue060819@gmail.com

목원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과 학사 졸업

수상

2020년 제 32 회 대전미술대전 공예 입선

2019년 제 7회 국제 니트아티빙 공모전 특선

2019년 제 30회 대한민국 텍스타일 대전 입선

전시

2023. 1 아인갤러리 A-in Art project 최효민 개인전, 아인갤러리

2022. 12 제38회 포항 청년 작가회 정기전, 포항시립 중앙아트홀

최효민 작가는 텍스타일 디자이너이자 섬유작가로 활동 중이며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과 수없이 가라앉았던 감정들, 무의식을 다양한 질감과 색채로 실험해왔다. 주로 직접 디자인한 원단에 자수를 놓는 작업 방식을 사용한다. 환경에 대한 의식을 더욱 키운 지금, 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재료 선택에 신중함을 기하게 되었다. 이번 작업을 기점으로 버려지는 옷들을 활용하는 작업 방식을 더욱 진행하고 싶다. 오염되어가는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작품으로 표현해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시간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03

나는 오늘 옷을 샀다. 기후위기를 샀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Mas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대량생산(Mass Production) 거대한 시장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생산품의 장기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기계의 발달과 인간의 조직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포드주의적 생산 형대는 오늘날 컴퓨터 기술의 도입과 보다유연한 생산양식에 의해 대량 생산체제를 대체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량생산(사회학사전, 2000.10.30., 고영복)

대량소비(Mass Consumption)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수준이 향상되어 소비형태가 기초적인 의류나 식품 등에 대한 수요보다 자동차, 가전 제품, 가구 등과 같은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 그 결과 기술혁신을 통한 내구소비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유통망이 활성화되면서 고도의 대량 소비시대를 이루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량소비시대(두산피디아, 두산백과)



패션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폐해”를 보았고 이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계속 살아가는 인류 악순환의 연속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의 옷 한 벌과 현재의 옷 한 벌은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압도적인 접근성으로 대량 생산되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발맞춰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인 '의'는 대량 생산에 발맞춰 대량 소비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빈민층과 개발 도상 국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질 높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던 인간의 욕심은 역으로 환경을 파괴하며 폐수와 오염된 공기로 인류에게 다양한 질병을 안겨줬다. 이러한 합리적 명분을 가지고 충분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해당 주제를 선정하여 작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발언을 보증하는 수많은 외부자료 중 하나를 소개해 신빙성을 더하려고 한다.

의류산업은 그 어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환경오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 그중 가장 화두 되고 있는 키워드는 데님과 패스트패션이다. 위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하겠다. 청바지 단 1벌을 생산할 때 드는 물의 양은 무려 7000L이다. 이는 4인 가족의 4~5일 치 소비량으로 그 양은 가히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천연'직물이 미세섬유 오염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연구에 따르면 데님 미세섬유가 바다 1,500미터 이상의 깊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입자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먼 지역에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중고 청바지를 세탁할 때마다 약 56,000개 미세섬유 입자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수백 가지의 의복 종류 중 데님 한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오염된 자연은 다시 인간과 뒤섞여 수많은 질병과 죽음을 낳고, 약해진 인류는 그 원인을 금세 잊은 채 다시 한번 환경을 오염시킨다. 악순환의 고리이다.

돌고도는 것이 트렌드이다. 패션산업도 돌고 돌아 대량생산이란 키워드를 버리고 소량 생산의 옛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다. 물론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대량생산 SPA 브랜드의 물량전을 이기긴 매우 힘들 것이다.

“패션 유통 시스템이 통째로 변화해야 한다”라며 “중국과 방글라데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옷들은 이제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어렵다. SNS를 통해 패션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남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Z세대 특징상 대량 생산 옷보다 자신들이 커

스터마이징한 소량 생산 옷이 더욱 주목받을 것”

해당 발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적 전략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량생산의 트렌드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맥락으로 통한다. 그 중심에는 SNS와 20대의 과시욕이 자리잡고 있다. 더 확실한 명분이 생겼다. 논리적 설득이 아닌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전략. 남들에게 멋지고 예뻐 보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를 직접 건들인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만 떠드는 환경오염 규제가 아닌 진짜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건드려 움직이게 하는 방법인 것 같다. 전략이 어찌 되었든 점점 패션산업은 소량 생산 고품질에 익숙해질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대량생산 대량 소비의 악습이 사라지고 과거의 소량 생산 고품질이라는 장인 정신이 화두 되길 기원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장 산업 활동 속 플라스틱과 배기가스 규제 등의 거대한 규모의 환경규제에 동참하는 행위들은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분명한 행동제한이 걸린다. 모두가 합심하여 오래도록 바뀌어야 하는 거대 산업에 뛰어들기 이전에 인간 개인으로써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실행하고자 한다.

비정상적 음식(2023년)



작품명(제작년도) : 비정상적 음식(2023년)

소재 : 캔버스에 섬유(Fabric on Canvers)

작업방식 : 재봉 및 공예

규격 : 1200mm × 900mm

작품 소개

재사용이라는 명목하에 수출되는 옷의 대부분은 썩지 않고 남아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드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어야 할 소들이 버려진 폐섬유를 먹고, 식수로 사용되던 아프리카 가나의 오다우강은 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강이 됐다. 그렇게 키워진 가축들은 도축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 분해되지 않은 가축의 몸속 섬유질들은 미세플라스틱화되어 고깃덩이와 하나가 된다. 작업과정으로 폐섬유와 폐의복으로 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든다. 이것이 화려한 식탁의 실체다. 먹음직스럽고 우아하게 놓인 스테이크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와 섞여 다시 식탁 위에 등장한다. 악순환이다. 입고 버린 옷은 어느 순간 뱃속으로,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우리에게 의복은 더 이상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생필품이 아니다. 단 한 벌의 값싼 옷을 만들며 파괴되는 대기와 수질과 숲을 의식하며 총동적 의류의 구매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다. 값싼 의류가 넘쳐나는 현대에 신중한 소비로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질 좋은 옷 한 벌 구매하고 애정을 가지고 오래도록 입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당 작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본인의 작업물이 무감각한 그들의 두려움을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고, 다시 그것들은 인간을 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작업 에피소드



먹음직스럽게 익은 레어 스테이크는 새빨간 양말 살결과 바삭하게 익은 인조가죽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스테이크 조각들은 먹기 좋은 크기로 제작되었다. 소재와 소재는 본드로 1차 접착을, 2차로 두꺼운 실을 이용해 재봉했다. 바삭하고 질기게 익은 겉껍질에선 싸구려 플라스틱 냄새, 부드러운 피하 지방층을 이루는 코듀로이 원단은 만지기만 해도 올라오는 먼지를 품고 있다. 가장 안쪽의 감칠맛 나는 속살은 살짝만 눌러도 육즙이 흘러나올 듯한 붉은 기를 띄고 있다. 실제 고기의 촉감을 생각했다. 잘 익은 스테이크 한 덩어리. 식기 위에 통째로 올라와 있는 고열량 식품. 나이프가 겉껍질을 스택치듯 지나고 힘줄과 지방층을 가로질러 속살까지 끝장내고 다시 지방과 힘줄을 만나 모든 것이 부드럽게 끊어지다 껍질을 가로질러 접시의 바닥과 만나는 일련의 과정.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촉각과 시각. 스테이크의 겉껍이 특성을 해체해 소재에 그대로 녹여내었다.

작가 소개

배재영

1999.03.02

- 2021 OPEN STUDIO 'Art andArtist' - 패션아티스트
- 2021 'BALIM collection' - 패션쇼
- 2021 포항, 그 삶속 옷 이야기 - 의상제작
- 2021 포항거리예술축제 - 의상감독, 작가
- 2021 DDU Fashion Festa - 디자이너
- 2021 대전패션컬렉션 - 디자이너
- 2022 예술잡지 'TIKKEUL' - 기획총괄, 작가
- 2023 '육구불만 : 역' 단체전 - 기획총괄, 작가
- 2023 NewYork International Design InvitationExhibition - 작가
- 2023 Spain International Design Invitation Exhibition - 작가

04

물속의 미세플라스틱 35% 옷에서부터

미세플라스틱 MicroPlastics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은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된 크기 5mm이하의 합성 고분자화합물로 정의된다. 미세플라스틱은 생성되는 기원에 따라 1차 미세플라스틱(primary microplastic)과 2차 미세플라스틱(secondary microplastic)으로 구분된다. 1차 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알갱이로서 레진 펠렛(resin pellet, 크기 2~5mm의 플리스틱 원료물질), 세안제와 치약에 들어 있는 스크럽제, 공업용 연마제 등이 포함된다. 2차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되는 과정이나 버려진 이후에 인위적인 행위나 자연 풍화에 의해 조각나고 미세화된 플라스틱 파편을 가리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세플라스틱(해양학백과)





님수행 작기는

트렌드리는 이름하에 빠르게 지나가는 패스트패션이 앞으로 삶을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하게 만들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었다.

일상 속 불편함은 우리의 패스트패션으로부터

나조차 몰랐던 어쩌면 우리 모두가 몰랐던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건 우리 일상에 와닿는 불편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유명 체인점 음료 가게의 빨대가 한순간 종이 빨대로 변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호물거리는 게 불편했다. 비닐봉지에서 바뀐 종이봉투는 비가 오거나 내용물에 물기가 있으면 금방 찢어져 결국엔 손으로 들고 가게 만들어 불편했다. 바닷새의 죽음과 함께 한 장의 사진에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며 불편함을 느껴야 했다. 그리고 패스트패션과 함께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야 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편함이 섬유산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원인은 플라스틱이다. 그 플라스틱 속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세 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나처럼 혹은 우리 모두처럼 알지 못해 환경을 지키지 못했던 모두에게. 빠르게 지나가는 트렌드로부터 생긴 패스트패션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미세 플라스틱은?

빠르게 제작되어 빠르게 유통된다는 의미로 대표적인 패스트패션 브랜드로는 자라, 망고, H&M, 유니클로, 에잇세컨즈, 스파오 등이 있다. 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소비된다는 건 그만큼 옷을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생산하는 과정에 물과 에너지 소비된다. 그리고 화학물질 사용에 따라 폐수가 발생하고 발생하는 폐수는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우리의 바닷속에는 다양한 해양쓰레기들이 떠다니고 있지만 그중 문제로 화두 되는 건 미세 플라스틱이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해양에 버려진 각종 소비용품, 합성섬유 의류, 그물이나 밧줄, 부표등 각종 플라스틱 재질의 소비제품 및 산업용품을 물리 화학적 풍화나 마모 혹은 자외선과 결합하여 산화작용이 일어나 지름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형성된 2차 미세 플라스틱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는 미세 섬유로 알려져 있다. 연간 EU 표준수로 배출되는 176,300톤의 미세 플라스틱 중 의류 세탁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15,000톤가량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해역뿐만 아니라 금강, 낙동강, 그리고 한강유역의 물과 어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됐고 일부 정수장에서도 검출되었다. 전체의 의류 중 60% 이상이 합성섬유 및 천연섬유와 혼방으로 생산되고 있다. 합성섬유는 폴리에스테르계 석유화학물질, 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합성섬유로 만든 의류제품은 착용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거나 세탁할 때 미세 섬유 조각이 검출되며 그중 일부는 세탁기에서 여과되기에는 너무 작아서 배수구로 배출된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인체 끼치는 영향

이렇게 해양에 유입된 미세섬유를 포함한 미세 플라스틱들은 플랑크톤이나 어류 등의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상위 포식자인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와 독성을 증가시키고 세포를 파괴하는 등 건강 위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 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 안에 축적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갑상선 이상 기능저하 등의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 어떡해야 해?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2015년 유럽연합(EU)이 선두로 순환 경제를 천명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폐기물 재활용·재사용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 사용이나 생산공정의 변화 그리고 가정에서 세탁기에 필터 설치 등 제품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을 애초에 줄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2025년부터 세탁기 필터에 미세 플라스틱 필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우리도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그린슈머의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비건 제품과 리사이클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며 패션산업의 경우 지속 가능한 실천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제품의 기획과 생산 단계뿐 아니라 관리와 사용단계에서의 실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며 친환경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의 경우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세탁법 혹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패션 제품을 사용하고자 관리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바다-비연결(2023)



작품명(제작년도) : 바다-비연결(2023)

소재 : 플라스틱, 실, 아크릴물감

작업방식 : 모자이크, 아크릴, 니트

규격 : 700×700mm

작가 : 남수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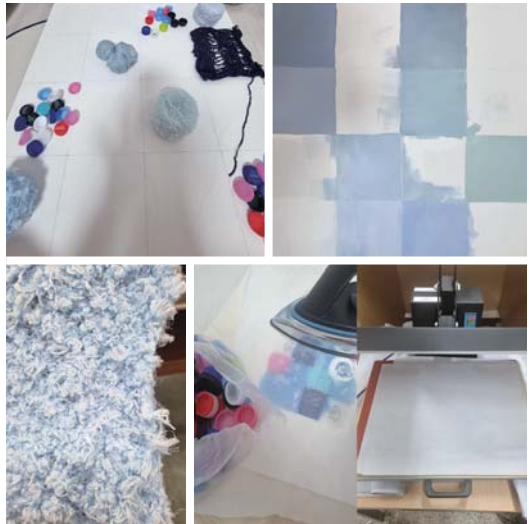
작품 소개

본 작품은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 어느 지점의 중앙을 기점으로 몰려있는 미세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바다 표면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뚜껑과 섬유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바다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채 미세플라스틱에 의해 가로막혀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 사이로 거친 파도 거품의 상태가 환경오염을 이야기한다. 표면에 동실 떠 있는 플라스틱이 바다가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며 해양오염에 대해 경고한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의 사진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패스트 패션으로 소비되는 니트류 실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바다가 연상되게 파란색 계열을 모자이크 기법으로 구성했으며 '미세플라스틱에 의해 바다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 버려진 플라스틱 뚜껑을 모아 녹여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다. 수직기를 사용하여 니트 직물을 제작하여 맑지 않은 거품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소비하는 의상의 일부분을 떠오르게 한다. 또 그사이 연결되는 선은 하얀 니트 실로 미세섬유가 물결 사이사이로 연결되는 걸 표현하였다.

작업 에피소드

플라스틱 뚜껑 작업은 에피소드가 많았다.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플라스틱 뚜껑 수집을 요청했고 한 달 뒤 모아놓은 플라스틱 뚜껑을 가지고 진행했다. 그런데 한 달을 모았음에도 양이 적어서 녹여 면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문제가 될 뻔했다. 또 병뚜껑을 녹이기 위해 처음에는 다리미를 사용했으나 더 높은 열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프레스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프레스기의 높은 열과 무게에도 쉽게 녹지않았으며 녹여도 뚜껑의 부피가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작업하면서 매우 어려웠었다. 직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수직기를 사용해 다양한 소재의 실을 직물로 짜는 과정 중에 날리는 털 먼지들을 보며 우리가 세탁하며 버려지는 물속 미세섬유에 대해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작가 소개

남수황 (98.10.31)

suhwang123@naver.com

목원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과 학사 졸업

목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 재학중

수상

2020년 제 32 회 대전미술대전 공예 우수상

2019년 제 30회 충청남도산업디자인공예 입선

2019년 제 30회 대한민국 텍스타일 대전 입선

전시

2022. 12 2022년 도시기억프로젝트 은행 1구역 리서치 프로젝트 : 결과 보고전
(대전근현대사전시과 기획전시실4)

최근 섬유 작업물의 주 재료는 친환경적인 재료의 활용도가 높다. 섬유를 사용하는 작가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환경적 반응을 염두해놓고 작업을 한다. 섬유를 중심으로 작업시 친환경적 소재 및 리사이클링 소재를 사용하기위해 연구하며 다양한 작품에 활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작가의 의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작품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섬유를 개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우리가 왜 계속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그리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구매자들에게 어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05

내일을 위한 패션

슬로우패션

Slow Fashion

슬로우패션(Slow Fashion)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지속 가능 패션 센터(Sustainable Fashion Center)의 케이트 플레처(Kate Fletcher)가 2007년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패션을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즐기자는 의미이며, 친환경적이고 윤리적 가치를 담은 패션을 추구한다. 패션의 모든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여 높은 질의 제품을 만들되, 노동자의 권리와 동물 권리 보호 등도 유의한다.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입고 노화되면 수선하거나 리폼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더 이상 입지 않을 때는 교환, 재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옷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슬로우패션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구 환경과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슬로우패션(두피디아, 두산백과)



양승진 작가는

우리가 선택한 옷이 자신의 의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마케팅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길 바랬다.

패스트패션은 탐욕의 영역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슬로우 패션은 '속도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한 패션'이다. 그러나 2007년 작가이자 활동가인 Kate Fletcher가 The Ecologist의 기사에서 "슬로우 패션"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을 때, 슬로우 패션이 시간을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품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우리가 의류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패션은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팔고 더 많은 돈을 버는 탐욕에 관한 것이다.”

그녀의 말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와 브랜드도 속도를 늦추고 품질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으며, 이는 곧 슬로우 패션의 개념이 완성되는 토대가 되었다.

패스트패션을 향한, 오래된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주제를 선정하였다. 업계가 주도하고 계획한 속도를 따라야 한다면 우리는 매 분기 옷을 소비해야 하며, 한순간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그 흐름에서 벗어나 도태된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한다.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누구나 바란다. 나의 표현이 매력적으로 여겨지기를. 아름다움을 좇는 것은 인류의 본능이다. 하지만, 이 시대의 환경은 당신들이 스스로 가꾸어 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기업 종사자들의 합의이다. 당신이 생활하는 공간과 환경에는 모든 광고가 둘러싸고 있다.

기업들이 주도하는 소비계획에 잘 학습된 당신은 어느새 광고가 일상이 되어버려서, 광고를 접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0'의 상태인, 기업들의 꿈을 이뤄내 줄 초전도체가 되었다.

패스트패션의 현재 모습

-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하기 전까지 몇 번만 입고 버려지도록 생산한다.
- 생산 노동자들은 대부분 장시간 일하며 그에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그들의 업무 환경은 안전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그들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 대부분 대량생산된다. 특정 디자인이 팔리지 않는 경우, 그 상품을 폐기/매립하거나 소각한다.
- 대부분 개발 도상국가에서 상품 제작 후, 전 세계로 배송한다.

당신이 입는 그 옷, 누가 입혀준 옷일까?

내가 좋아하는 옷감의 느낌, 재질, 색채, 분위기, 온도, 어울리는 장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탐구해 보라.

곧 지나면 사라질 유행, 잠시 이 순간 강력한 매력을 어필하는 연예인-연예인의 패션 코디네이터의 연출, 깊게는 의류 제작 업체가 고안해낸 패션-을 따라 하고 싶은 욕구에 잠식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을 살펴보자.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푸드, 패션, 뷰티 등 광고를 맡게 된 인물들이 애초에 그것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그저 당대의 매력적인 그가 사랑스럽기에, 또는 따라 하고 싶기에, 아니라면 그 인물을 갑자기 신뢰하기에 소비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나의 몸매, 비율, 어울리는 것들, 장점과 단점, 장점을 돋보일만한 장식들, 단점을 감추거나 가리며 매력을 한껏 돋보이게 할 것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연구하자. 나의 본모습과 표현의 욕구를 이해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슬로우 패션이 무엇인지 모른 채 시작했더라도 어느새 한 발자국 내디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Color Your Color(2023)



작품명(제작년도) : Color your color(2023)

소재 : 패턴섬유, 아크릴, 섬유물감

작업방식 : 섬유조합, 아크릴 페이팅

규격 : 910mm×910mm

작품 소개

디지털 디자인 툴에서 프로그래머들이 적용한 '레이어(Layer)'는 획기적인 발상이다. 기존의 아날로그 작업과 표현방식에도 레이어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표현방식을 시도하는 중이다. 우연히 배재영 작가의 '꽃' 주제 작품을 나뉘 분해해 보면서 각 꽃잎이 사람의 마음에 비추었을 때, 각 색이 다른 마음의 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우리의 마음은 다양한 색의 꽃잎이 조화롭게 몸을 이루어 빛어낸 꽃인 것이다. 이번 작품에도 이 형식을 채용하여, 캔버스에 하나의 모델을 배치하고 주변부에 옷감을 색채와 재질을 이질적으로 비교 구성하였다. 각각의 옷감과 소재는 당신이 보유한 가능성이며, 작품 중앙(심부)에서 표출되는 빛의 색채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입혀주었을 때, 나타나는 잠재력이다. 당신은 이미 당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절묘하게 표현하는 매력을 지녔으며, 대부분이 이끌림 당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만을 위한 옷을 찾아내었을 때, 그 무엇보다 빛난다.

작업 에피소드



어느날 작업실에서 작품을 마무리 중이었는데 친구가 놀러와 보던 유튜브 영상 속 음성 메시지가 들렸다. “와~!! 치킨이다. 맛있겠다. 바사삭~”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친구는 “승진아, OO치킨 시켜 먹자!”라고 말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광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 대상들을 관찰하는 취미가 생겼다. 예전이였다면 그냥 지나쳤을텐데, 요즘은 유독 더 신경이 쓰인다. 하루는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이거 가수 ㅇㅇ이 입던거야, 이거 입을래.”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 나이대에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하며 순간을 지나쳤다. 하지만, 점점 이러한 상황들에 혼란스러워졌다.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낮 시간대의 홈쇼핑 속 의류판매 화면을 보고나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불편해졌다. 분명히, 화면속의 여성 모델은 170이상의 키, s사이즈에 해당하는 옷을 입고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매자는 그 구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은 화약무기가 쓰였던 제국주의시대의 전쟁을 끝마치고, 자본주의 시대를 열었다. 어쩌면 우리는 자본주의시대의 전쟁 속에 마케팅이라는 마법 같은 무기로 누군가를 홀리거나 누군가에게 홀림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작가 소개

작가 양승진 @Jin_forest41

충남대학교 역사학과 졸업

2022. 11. '파도, 꽃' 1회 개인전 (쌍리)

2023. 3. '파도, 꽃' 2회 개인전 (테미오래)

2023. 4. '전시마켓 2023' 단체전 (갤러리 비범)

예술이란, 대중들이 보지 못했던 세계,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본인의 방식은 다른 장르들을 조합하여 연출하고, 기존의 프레임을 해체하고 재해석하는 것이다. 1차 전시 이후에 기획 중인 백제 스타일 의복, 쌍리(雙鯉)를 주제로 한 다도, 그리고 LED 소품을 활용한 2차 전시를 라이브 퍼포먼스 형태로 2023년 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전 시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교육 교재·교구와 환경교육에 사용하면 좋은 작품들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http://djeecp.com/>) 상담신청란에 대여신청하시면 편리하게 관련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구 대여

☞ 환경교육 > 환경교육자료

환경 자료실

전체 교재 교구 발달 기타

총 게시물 117개 (현재 1/10 페이지)



탄소물질 관련 교구 - 탄소기둥피

2023-08-28



[2023] 환경 콘텐츠 교구(인) 담배를 연내

[2023] 환경 콘텐츠 교구(인) 환경용 담배를 무연 연내 이간 배지 교구(유아용)교구(유아 무연)에서 기존 '연안'을 사용, 불발산 배지용 제품...

2023-08-28



[2023] 환경 콘텐츠 교구(인) 수상사 담배를 연내

[2023] 환경 콘텐츠 교구(인) 환경용 담배를 무연 연내 이간 배지 교구(유아용)교구(유아 무연)에서 기존 '연안'을 사용, 불발산 배지용 제품...

2023-08-28



환경작품 대여

☞ 교구자재 > 통합검색

통합검색

총 게시물 3개 (현재 1/1 페이지)

환경작품 검색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
| 3 | 교지사양 | <6월 신형태강-환경작품 무연대여 접수>-환경전시가 필요한 곳에 환경 그림책 원화 전시 자... | 대전환경교육센터 | 2023-04-25 | 288 |
| 2 | 교지사양 | <환경작품 무연대여 접수>-환경전시가 필요한 곳에 기후위기 양면 캘리그래피 작품 17점 무... 리 | 대전환경교육센터 | 2022-10-21 | 451 |
| 1 | 교지사양 | <환경작품 무연대여 접수>-환경전시가 필요한 곳에 '지구를 위한 그린태극' 전시 작품 5점... 리 | 대전환경교육센터 | 2021-06-24 | 467 |



환경작품1



환경작품대여2
(캘리그래피)



환경작품대여3
(원화)



책소개

패션의 흑역사



그림1 패션의 흑역사

앨리슨 매슈스 데이비드 지음/ 이상미 옮김/ 탐나는책/
2022.4.18.
(그림출처=이투데이기사)



<패션의 흑역사>관련기사, 이투데이, 송석주기자, 2022.04.22

패스트패션

나는 왜 패스트패션에 열광했는가 그림2

엘리자베스 L. 클 라인 지음/ 윤미나 옮김/ 세종서적/
2013.8.20.
(그림출처=세종서적블로그)

<나는 왜 패스트패션에 열광했는가>세종서적블로그



지구를 살리는 옷장



그림3 지구를 살리는 옷장

박진영, 신하나/ 창비/ 2022.4.25.
(그림출처=문화체육관광부 추천도서)



<지구를 살리는 옷장> 문화체육관광부 추천도서



관련단체 소개

다시입다 연구소



'다시입다연구소'는 패션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의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0년에 시작된 비영리스타트업입니다.

대구섬유박물관



대한민국의 유일한 종합섬유박물관, 우리나라 섬유·패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공간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아시아폴리스 내 대구섬유박물관
TEL 053-980-1004



관련공방 소개



「YEON」주얼리 공방

주얼리 리폼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갤러리 분위기의 공방입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904 연주얼리

7 재작소

재작소는 스스로 시도하고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삶과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고민하는 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97-1 1층



슬기로운 사람들의 가치놀이창작소

지인당은 가치있는 일을 놀이처럼 재미있게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창작소입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정2길
13 1층 작업실 지인당



① 기후위기의 주범, 패스트 패션 - 최효민 작가

- 함연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느림'의 패러다임,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009년, 10p
- 유재경, 생산부터 폐기까지 패스트 패션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BELOW 1.5°C, 3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2.08., 48p
- 한은진 인턴기자,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다'는 당신, 이걸 꼭 봅니다, 국민일보, 2021.10.16.,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6362866>
- 황인솔 기자, "패스트패션이 환경을 망친다" 예술가의 업사이클링, 그린포스트코리아, 2019.03.08.,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62>
- 박영규 기자, 대구섬유박물관, '최소한의 옷장' 특별전시회, 서울일보, 2023.05.08.,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071>
- 유주희 기자, 대전 성심당에서 '패션의 역습' 전시, 서울경제, 2023.08.02.,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93M1HAQ>

② 나는 오늘 옷을 샀다, 기후위기를 샀다 - 배재영 작가

- 이세진 기자, 유행 따라 값싼 옷, 환경엔 값비싼 대가, 헤럴드 제경, 2021.11.03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11103000646>
- 황원희 기자, 청바지가 수질오염의 원인이라고?, 에코미디어, 2020-09-03 15:52:44, <https://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5931424276>
- 라예진 기자, "패션미래, 대량 아닌 '소량' 생산이다". 이코노미스트, 2022.07.29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207290042>
- 김태원 기자, 일상회복에 버려지는 방역용품...환경오염 주범 되나?, YTN, 2023.03.13.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3_202303130540183963
- 김도담, '우리가 버린 옷'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돼 소 먹이가 됐다, 뉴스펍, 2021.07.02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5>

③ 물속의 미세플라스틱 35% 옷에서부터 - 남수향 작가

- 김종화 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부 교수 '해양미소플라스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대해양 2018.06.14.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8>
- 박미선 기자, SPA브랜드 작년 국내 매출 1등은?...'토종 브랜드'약진 - 공감언론

뉴시스 2023.05.10.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9_0002295808

- 윤지원 (Jiwon Yoon),and 유신정 (Shinjung Yoo). "지속가능한 의생활과 의류 미세플라스틱 의식 연구 -인조모피와 플리스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45.2 (2021): 398
- 엄영숙. "순환경제 시대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재 제품에 대한 수용성과 지불의사: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소재의류를 사례로." 자원·환경경제연구 311 (2022): 4,7,9,10
- 이영희 기자, '제2의 미세먼지' 바다 미세 플라스틱은 침묵의 살인자2019.03.12.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2105300051?section=search>
- 최지현 기자,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 한인포스트2022.3.26. <https://haninpost.com/archives/52323>
- 김나윤 기자 미세섬유 필터 의무화 추진하는 유럽...삼성_LG세탁기는? 뉴스트리2023.05.30.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305260012>
- 버려진 뚜껑에 진심! 폐기물로 상품 만드는 기술 [우리가 몰랐던 과학이야기] 2023.08.01. 한화 솔루션 블로거<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01518319?OutUrl=naver>
- 버려진플라스틱, 젊은예술가의 작품으로 재탄생/헤드라인제주/2021.03.03./오영재기자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458>
- 예술작품으로 해법 모색한 제주바다쓰레기 / 한라일보 /2019.07.01. / 진선희기자 <http://s1.ihalla.com/article.php?aid=1561974123633969036>
- 현대사회 문제로 부상한 '환경오염'...예술로 푼다 /뉴제주일보/2019.03.21./김나영기자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190>

④ 내일을 위한 패션 - 양승진 작가

- What Is Slow Fashion? Definition, Progress, and Tips
By Sharmon Leiby, Treehugger, Published June 30, 2021
Stefko, Robert and Steffek, Vladimira. "Key Issues in Slow Fashion: Current Challenges and Future Perspectives." Sustainability, vol. 10, no. 7, 2018, pp. 2270., doi:10.3390/su10072270
<https://www.treehugger.com/what-is-slow-fashion-definition-progress-and-tips-5189080>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7권 제4호, 「연구논문」 pISSN 1229-2060 2015 eISSN 2287-5743 Fashion & Text. Res. J. Vol. 17, No. 4, pp.550-560(2015)
<http://dx.doi.org/10.5805/SFTI.2015.17.4.550>
- 환경의식에 따른 패스트패션 구매자의 의복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이현지†,경성대학교 의상학과
- 슬로우패션 vs 패스트패션

발취기사, KEFN, 한국윤리적패션네트워크, 2021-10-01, 발취기사 링크는 실효됨.
<http://kefn.kr/article/?idx=8154272&bmode=view>

- 작가 배재영, '자연'스러움, 전시 발취
https://www.instagram.com/p/ChznJP-LbV9/?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id=MzRIODBiNWFIZA==
- 작가 양승진, '파도, 꽃', 전시 발취
https://www.instagram.com/p/Cl_u8rdPNH-/?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id=MzRIODBiNWFIZA==
- searchpress팀 작성, 작품 소개
<https://www.searchpress.com/book/9781782213345/the-textile-artist-layered-cloth>
- Three-Dimensional Landscapes Formed with Layered Acrylic Photographs by Nobuhiro Nakanishi, KATE SIERZPUTOWSKI, 20170606, Colossal
<https://www.thisiscoossal.com/2017/06/layer-drawings/>

지구를 위한 그린액션 시리즈

노 패스트패션 편

발행일 2023년 11월

전화 042-335-3500

공동집필진 최효민 작가

배재영 작가

남수향 작가

양승진 작가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 고은아, 이윤경, 양경지

홈페이지 djeeep.com

이메일 djeeep@djeeep.com

지구를 위한 그린액션 시리즈
노 패스트패션 편

환경부와 대전광역시에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